

유기인제 중독 후에 발생한 Horner's syndrome 1예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신장내과 및 농약중독연구소
길효욱, 양종오, 이은영, 홍세용

서론: 유기인제의 임상적 발현 양상중 자연성 다발성 말초 신경병증은 특정 약제에 의해 발생 하며 주로 하지 원위부의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을 침범하는 다발성 말초신병증을 특징으로 한다. Horner's syndrome은 척추에서부터 symphatethic cervical ganglion, 안구 어디에 병변이 있어도 발생 가능하다. 아직까지 유기인제에 의해서 Horner's syndrome이 발생한 예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저자들은 급성 유기인제 중독 후에 자연성 다발성 말초신경병증과 함께 발생한 Horner's syndrome을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중례: 45세 남자환자가 내원 당일 디디브이피(Dichlorvos) 유기인제를 약 30cc 음독 후 타기관에서 응급 처치후 기도 삽관을 하여 본원으로 전원 되었다. 내원 당시 의식은 혼미하였으며 동공은 양측 2mm/2mm 이었다. 응급실에 시행한 혈액 검사상 GOT/GPT 467/126IU/L상승하였으나 다른 검사는 정상이었고 혈청에서 Acetylcholinesterase level은 642로 측정되었다. 아트로핀과 PAM을 정주하고 인공호흡기를 장착하였으며 혈액 관류를 실시 하였다. 내원 11일째 의식은 명료해졌고, 내원 21일째 인공호흡기를 이탈하였으며 Acetylcholinesterase level은 3002로 측정되었다. 내원 30일째 양하지의 무력감을 호소하였고 오른쪽 눈으로 ptosis를 보였으며 동공이 anisochoric 하였다. 암실 동공 검사 상 동공의 크기가 암실에서 저명하게 차이를 보였다. 양하지 및 상지에서 근전도 검사를 시행하였고 polyneuropathy에 합당한 소견을 보였다.

결론: 유기인제중 자연성 다발성 말초 신병증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dichlorvos에 의한 자연성 말초 신병증 및 이와 동반된 Horner's syndrome을 진단할 수 있었다. 유기인제에 의한 다양한 신경병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Fanconi's syndrome을 유발한 파라과트 중독 1예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신장내과 및 농약중독연구소
길효욱, 양종오, 이은영, 홍세용

서론 : Fanconi's syndrome는 유전적 원인 이외에도 여러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후천적 원인으로 중금속이나 교원성 질환, monoclonal gammopathy 등이 보고 되었다. Fanconi's syndrome시 저인산혈증은 발생할 수 있으나 의식의 변화를 일으킬 정도로 심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파라과트는 매우 치명적인 약제이며 급성 세뇨관성 괴사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Fanconi's syndrome를 유발했던 예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저자들은 급성 파라과트 중독이후 의식변화를 일으키는 저인산혈증을 보이는 Fanconi's syndrome을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중례 : 44세 여자환자가 내원당일 소량의 파라과트를 음독후 7시간만에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의식은 명료하였고 입에 파라과트에 의한 궤양이 관찰되었으나 다른 이학적 검사는 정상이었으며 검사실 소견은 정상이었다. 이에 위세척후 항산화제(glutathione, N-acetyl cysteine, Deferoxamine, thiocctic acid, Vitamin E)을 투여하였다. 내원 5일째 저인산혈증 및 정상음이온차를 보이는 산증이 발생하였고, 7일째 의식이 혼미해지면 저인산혈증(1.1mg/dL)을 보였고 소변 검사상 단백(+), 당(++), 적혈구 20-25/HPF, 백혈구 2-4/HPF로 보였다. 이후 뇨 아미노산 검사에서 Fanconi's syndrome에 합당한 과아미노산뇨증을 보였다. 이후 인을 보충한 후 13일째 의식이 회복되었으며 이후 23일째 시행한 신조직 검사상 급성세뇨관괴사를 진단하였다. 이후 환자는 의식회복 및 소변의 뇨침사소견은 회복되고 산증도 저절로 회복되어 외래 추적관찰 중으로 외래에서 시행한 검사상 특이소견은 없었다.

결론 : 파라과트는 근위부 세뇨관손상을 주는 급성 세뇨관성 괴사를 조직학적으로 처음으로 증명하였으며 심한 저인산혈증을 보이는 Fanconi's syndrome을 진단 할 수 있었다. 신조직 손상은 가역적으로 파라과트 중독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한다면 신손상은 회복될수 있으며 근위세뇨관 손상에 대한 세밀한 관찰이 요구된다.